



■ 케테 벤첼

2018조명분야1위 공간조명



케테 벤첼 작가는 '뼈로 만든 의상(The Bone Costume-사진)'을 출품해 동물과 인간이 맺는 모호한 관계를 다룬다. 사람들은 가축을 공산품처럼 소비하고 야생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빼앗으며 멸종의 길로 내모는 한편 다양한 종 사이의 조화로운 공존을 꿈꾼다. 작품은 베를린 레스토랑 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나온 가금류의 뼈를 수거해 제작됐다. 작가는 일주일 동안 약 200마리 분에 달하는 뼈가 수집되는 것을 목격하며 동물의 대량 번식과 살육의 상황을 직면, 고기의 대량 소비와 동물과의 소통을 동시에 지향하는 인간의 열망을 조영한다. 동물의 뼈는 인간의 신체를 이상적인 모양에 끼워 맞추는 코르셋 모양으로 만들어져 삶과 죽음, 사람과 동물 간의 연결 등을 의미한다. 한승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인1조 동행으로 희망메시지 전달해요"



안전대진단 '수박겉핥기' 진단 되풀이

제2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노리는 마이너 채널



영월 농기센터 희망농업대학 개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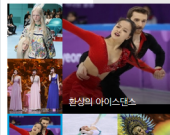


남북정상회담 내달 말 개최 "북, 비핵화 의지 밝히"



원주 시의원 선거구 늘었지만 정수는 '동결'

HOT 포토



확인하세요

강원보행상사령가원

추천 고용복: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Tel.(033)250-



강원도민일보 사고



제2회 태백산배 생활

강원도민일보는 생활